

‘장흥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 구성

‘2014 장흥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 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재단법인 장흥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 절차를 마친데 이어 빠르면 내년 1월 통합의학 전시, 교육체험관 건립, 국제 학술회의 업무를 보는 조직위원회가 가동된다.

우선 내년 1월 중순께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승인이 되는대로 (구) 남도대학 겸

법인 설립 등기 절차 마쳐

공무원 23명 사무국 설치

자문위 등 300명 내달 가동

퍼스내에 전남도와 장흥군에서 파견되는 사무국장(4급·서기관)1국 2부(5급·사무관 2명) 6팀 등 일반직 공무원 총 23명이 근무하는 한시적인 사무국(기구)이 설치된다.

이와 별도로 행사운영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도지사과 장흥군수가 공동으로 맡는 조직위원장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다.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총 190억원(국비 57억원, 지방비 98억원, 자체수익 35억원)규모로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통합의료센터’ 부지 내에서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까지 일정으로 열린다.

‘사람으로 향하는 길을 열다’라는 슬로

건으로 개최되는 통합의학 박람회는 총 40개 국가로부터 5만여 외국인 등 총 100여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해 1622억원의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675억원과 3190명에 이르는 취업유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장흥지역의 도로망 취약에 따른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아직까지 외국 전문 의료인 등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인 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사진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청자 토요경매 7년만에 폐지

342회 경매 4008점 낙찰

강진 명품청자 토요경매가 7년여 만에 폐지된다.

강진군은 “27일 오후 3시 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342회를 끝으로 내년부터 명품청자 토요경매를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청자축제 기간 중에 하는 홍보성 경매행사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개관기념일과 청자 축제, 순회경매 등 이벤트가 있는 경매

행사로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토요경매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4852점(21억200만원)이 출품돼 4008점(9억3000만원)이 낙찰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인 관광객 유치효과도 미흡했다. 또 평소 구매시에도 할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판매질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민간업체에서의 폐지요구도 있었다. 강진군 관계자는 “홍보성 경매행사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 중학생 20명

美·필리핀 어학연수

강진지역 중학교 3학년 20명이 미국과 필리핀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떠난다.

강진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7기 해외 단기 어학연수 설명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필리핀 딸라주 딸라주립대학교(2015년 1월 5~30일)와 미국 워싱턴주 스노호لم시 마운트사이고등학교(1월 9~31일)에서 어학수업과 현지 문화체험을 갖게 된다.

군은 매년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어학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소 부진했던 프로그램을 조정해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교실에 앉아서 받는 어학수업 위주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생생한 현장영어와 살아있는 현지 문화체험에 중점을 뒀다. 미국 연수단은 1인 1가정 홈스테이 생활로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다양한 현지체험을 실시한다.

또 시애틀 투어와 스키캠프, 골프체험 등 다양한 현지 문화체험을 하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도(州都)인 빅토리아를 방문, 영국 식민지시대 유물을 보고 미국과는 다른 캐나다의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홈스테이 가정 학생과 사흘간 동반 등교해 현지 학생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갖는다.

필리핀 연수단은 프리토킹 수업과 현지 학교 수업참여, 1:1 튜터수업 등 집중 훈련 프로그램과 우리 학생들이 가능한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문화체험에 현지 학생들과 대학생 튜터들도 함께 동반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다문화 이주여성들 8개국 음식 잔치

장흥지역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최근 장흥고등학교 강당에서 자국의 전통음식을 만들고 있다. 이번 ‘다문화 전통음식 체험교실’ 행사에는 필리핀 등 8개국 22명의 이주여성들이 참여해 자국의 음식문화를 소개했다. <장흥군 제공>

다산의 실학사상 형성과정 실증적 탐색

강진 다산실학연구원 학술대회

강진 다산실학연구원은 최근 다산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주자학에서 실학으로-텍스트로 본 조선 유자의 정치·지향’이라는 주제로 제1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주자학에서 실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발표하고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제발표에서 총론을 담당한 아주대 조

성을 교수는 ‘조선 주자학과 실학, 그 연속과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 도현철 원장은 ‘정도전의 문치사회의 성격’, 김정신 연세대 연구교수는 ‘선조대 덕흥대원군의 전례 논쟁과 종법 인식’ 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이봉규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와 토론자 전원이 모여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주자학이 실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으며, 다산 정약용의 실학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텍

스트 분석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인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다산 사상에서 가장 난해한 것으로 알려진 예학(禮學)을 그 원인으로부터 탐색함으로써 다산 예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다산실학연구원은 매년 2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동아시아의 지방통치와 공공성’이라는 주제 아래 정약용의 대표적 저술인 ‘목민심서’를 집중적으로 조망한 바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 세일글

“대불산단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

강철원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사장



“전남 서부권 최대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한국전력공사 강철원(57) 영암지사장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응전략팀을 가동하는 등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 출신인 강 지사장은 지난 1977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후 부산지역본부 울산전력서 송전부장, 강진지사장, 광주·전남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용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품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보2억 월1,000만)
- 상주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현영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회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조정가, 아짜장 주점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

